

금년중 신흥시장으로의 민간자본 유입 회복 전망

□ 민간자본 순유입 증가세로 반전

- 신흥시장에 대한 민간자본유입 규모는 2001년의 1,320억 달러에서 금년에는 1,600억 달러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국제금융연구소(IIF)가 전망.
- 내용면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금융 및 포트폴리오(간접)투자가 증가하는 반면 금융기관 대출상환액 및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보임.
-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는 점차 차별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음.
- 향후 신흥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며 대부분의 자본시장은 작년 4사분기부터 호조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호조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체적인 민간자본 유입규모는 1995-97년 수준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편이며 자금조달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표> 신흥시장에 대한 자금유입 추이

	1998	1999	2000	2001	2002
순 자금조달	191	163	169	148	176
민간자본	139	154	173	132	159
자본투자	133	171	149	149	138
(직접투자)	120	150	135	139	117
(간접투자)	12	21	14	10	21
민간차입	6	-16	24	-17	21
(상업은행)	-55	-54	-13	-23	-6
(비 상업은행)	61	38	37	6	26
공적자금	52	9	-4.2	16	17
국제금융기구	38	2	2	22	21
이국간 금융	14	7	-7	-6	-3

자료 : IIF, Capital Flows to Emerging Market Economies, 2002. 4.

□ 외국인직접투자는 감소하는 반면 간접투자 증가

- 최근들어 신흥시장으로의 자본유입 형태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액은 작년의 1,400억 달러에서 금년에는 1,170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세계경제의 회복 가능성 및 개도국 기업의 수익성 회복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민영화 감소추세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순 간접투자 유입규모는 작년의 100억 달러에서 금년에는 21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중 약 160억 달러 정도가 아시아 신흥시장으로 유입될 전망이다.

□ 신흥시장으로의 중기적 자금흐름에 있어 불안요소는 상존

- 주요 선진국 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 상존
- 중동 지역에서의 정치적 불안 가중과 이에따른 국제원유가의 상승

- 일부 신흥시장의 경우 활발한 자본유입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여전히 내재해 있음. 즉 구조조정 및 민영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투자자금이 이탈된 상태로 있어 이들 자본이 복귀토록 하기 위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상당기간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유지해야 함.
- 이와함께 아르헨티나 사태로 인한 전염효과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이기는 하나,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재고하고 여타 국가들이 포퓰리스트(populist)정책을 추구하면서 영향을 받을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최근 민간차입 동향

- 비은행권의 신흥시장에 대한 차입자금유입은 작년의 60억 달러에서 금년에는 260억 달러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작년의 경우는 터키 및 아르헨티나로부터의 대출회수에 따라 부진했던 반면에 금년에는 브라질 및 멕시코의 차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활기를 띠고 있음.
- 상업금융기관의 용자금 상환추세는 금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 규모는 전년도의 230억 달러에서 금년에는 50억 달러선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상업은행 대출의 감소는 국내 은행 및 기업들이 현지시장을 통한 차입규모는 늘려가는 반면 국제금융기관들이 신규용자시 자체 B/S base 지원에서 수수료 관련 거래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임.

□ 지역별 자본 흐름 동향

- 아태지역에 대한 순 민간자본흐름은 경제상황 호전으로 인한 지분투자 증가로 68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중남미의 경우도 아르헨티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5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신흥유럽지역에 대한 민간자본흐름은 300억 달러로 배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자금유입은 96억 달러로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